

김계춘 칼럼

김계춘
kckim21@ihalla.com

제주의 청정한 물과 바람은 우리의 소중한 자원(資源)이다. 그런 데 이의 사용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면서 온 동네가 시끄럽다.

물(水)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건 제주도의회 박희수 의장이다. 박 의장은 지난 16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1일 20만톤 증산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나 박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시켜 무산(霧散)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공항측이 이에 불복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도내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취수 증량 시도'를 강력 규탄했는가 하면 전직 도의원들의 모임인 제주도의정회도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에 제주상공회의소 등은 "청원서 제

제주의 '물과 바람'을 둘러싼 논란

도 한국공항의 증산(增產)을 허용한 사실이 없다"며 "이는 선배 의원들의 결연한 의지의 결과였다"고 강조했다.

현역인 제9대 의회 의원들도 이를 본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더합니다.

지하수와 관련 공수화(公水化) 정책을 지키려는 박 의장의 '충정(衷情)'은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의원들간 논의도 해보기 전에 의장이 먼저 나서 '대못질'을 한 것은 결코 적절한 처사로 보기 어렵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건은 지난 2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1일 20만톤 증산하는 것으로 상임위에서 통과됐으나 박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시켜 무산(霧散)된 바 있다. 그러나 한국공항측이 이에 불복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또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도내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취수 증량 시도'를 강력 규탄했는가 하면 전직 도의원들의 모임인 제주도의정회도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에 제주상공회의소 등은 "청원서 제

출은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이라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조속한 동의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찬·반 양론이 맞서는 가운데 후후 도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를 주목된다.

바람(風)을 둘러싼 논란도 끝겁다. 그 중심엔 제주자치도가 지난달 지정 고시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자리잡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장기적인 에너지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전략의 일환. 제주도는 오는 2030년까지 육상 350MW와 해상 2000MW 규모의 풍력발전 보급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사업도 시작되기 전에 각종 의혹(疑惑)이 불거지며 몸살을 앓고 있다. 도내 환경단체들은 '심의 과정상의 많은 문제와 함께 결격사유가 확실한 후보지들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강행 추진함으로써 도민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풍력발전지구 지정고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부 지구에선 법적 대응 불사(不

懈) 움직임도 감지된다. 논란의 와중 속 제주도의회도 풍력발전지구 지정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풍력의 경우 '공공(公共)자원'의 범주에서 비켜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자들은 대부분 도의 대자본이다. 풍력개발로 인한 이들의 수익은 제주에너지공사의 전망(30MW 단지 조성시 연간 140억원 판매수익)을 미루어 짐작하면 실로 막대(廣大)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이익의 지역활원 정치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에너지 자립기반 확보를 명분(名分)으로 내걸었지만 '과연 누구를 위한 풍력개발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환경 파괴 또한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다. 제주의 물과 바람과 자연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귀중한 자산(資產)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할 때다.

'黑龍萬里 제주밭담' 집중 조명한다

마닐라가 위치한 필리핀제도 최대의 섬 루손(Luzon Island), '라이스 테라스(Rice Terrace)'라 불리우는 이후 가오 다랑이논으로 유명하다.

이후 가오 다랑이논은 해발 1000~1500m 고지대에 형성돼 있다. 끝도 없이 이어진 산줄기가 모두 크고 작은 논이다. 논둑을 이으면 지구의 반바퀴인 2만 2400km에 이른다. 2000년 전부터 다랑이논을 개척한 이후 가오족은 이 곳을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 부른다. 세 미라미스 공중 정원 등과 함께 세계8대 불가사의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제는 연간 12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다.

1만리를 간다고 해서 '흑룡만리(黑龍萬里)'라 했다. 실제로는 그 몇 배인 2만 2000여km에 이른다. 제주의 밭담 얘기다. 고불고불 이어진 모습은 흑룡의 꿈틀거림을 연상케 한다. 적박한 환경과 맞서 싸운 치열한 삶의 흔적이다.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온 선조들의 지혜이기도 하다.

밭담은 제주 전역에 분포한다. 문현상 최초 기록은 탐지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 고종 21년(1234년), 제주관찰감 김구가 경계표시를 위해 밭담을 쌓을 것을 명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다.

제주형 공립 대안학교 물거품되나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이 끝내 무산됐다. 한 때 속도를 내는 듯 했지만 제주자치도 교육청의 '불가(不可)' 방침에 막혀 원점으로 돌아갔다.

윤종광 제주자치도의회 의원은 그간 수차례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촉구해 왔다. "제주지역 학업 중도 포기 및 학교부적응 학생은 매년 400명을 웃돌 뿐만 아니라 다수가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들 학생에 대한 교육복지 및 전인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제주형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 의원은 며칠 전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포기' 의사표를 밝혔다. 도교

육청이란 현실적 장벽(障壁)을 인식한 듯하다. 도교육청은 '시기상조'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중도탈락자 중 실제 학교부적응 학생은 150명 정도로 그친다. 입학 희망자 적어 대안학교를 세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제주자치도의 행보 또한 방관자적인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다. "공립형 대안학교는 정규학교로 초등교육법을 적용 받는다. 주체가 교육감인 만큼 도지사가 만들 수는 없다"고 항변한다. "제주

다. 실제는 훨씬 앞설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농업의 역사와 궤(軌)를 같이 할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적박한 돌밭을 골라 경작지를 조성하면서 자연스레 형성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밭담은 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난 1월 청산도 구들장논과 함께 국가 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에서도 접수됐다. 5월 말 열리는 FAO총회에서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발표에 이어 현장설사·심의를 거쳐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 밭담 정비와 환경개선, 프로그램 사업도 진행된다.

한라일보가 창간 24주년을 맞아 '흑룡만리 제주밭담' 조명에 나선다.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세계지질공원 등 제주의 가치를 발굴·선양해 온 한라일보가 선보이는 또 하나의 세계유산 시리즈다. 세계농업유산 등재와 제주밭담의 지속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담론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으로 문화·경관·역사적 가치를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도민과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편집국 25시

제주자연의 미래는 아이들부터

문기혁
문화체육부 기자
ghmoon@ihalla.com

직업상 인터뷰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난다. 특히 제주자연에 대한 넘치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제주자연을 가꾸고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접하게 된다.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주자연에 대한 각별한 애정의 계기'를 묻게 된다. 질문이 같지만 사람에 따라 대답은 다를 법도 한데 "제주의 산, 바다를 놀이터 삼아 성장한 어렸을 때의 기억 때문"이라는 게 그들의 한결 같은 대답이다.

서귀포시 송산동과 천지동, 경방동 일대 4.3km에 총 43개의 작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2012마을미술프로젝트 '유토피아로'가 1년여의 제작기간을 거쳐 문을 열었다. 3~4시간을 걸

으면서 '유토피아로'의 43개 작품을 살펴봤는데 이 중 인상적인 작품이 있었다. 김정은·이유현 작가가 생태미술교 육프로그램인 칠십리 영 탐사대 참가 학생들과 함께 만든 '칠십리 영 탐사대'였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야외 설치작품이 주를 이루는 특성상 마을주민들의 작품에 대한 주인의식과 관리가 요구되는데 '칠십리 영 탐사대'가 장차 '유토피아로'의 주인이 될 아이들을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유도한 것이다.

세계의 보물섬으로 우뚝 선 제주의 자연은 여느 예술작품 못지 않다. 하나님의 거대한 애의 예술작품과 같은 제주자연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리가 요구됨은 당연하다. 하지만 제주의 산을, 바다를 놀이터 삼아 성장한 어렸을 때의 기억 때문"이라는 게 그들의 한결 같은 대답이다.

서귀포시 송산동과 천지동, 경방동 일대 4.3km에 총 43개의 작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2012마을미술프로젝트 '유토피아로'가 1년여의 제작기간을 거쳐 문을 열었다. 3~4시간을 걸

으면서 '유토피아로'의 43개 작품을 살펴봤는데 이 중 인상적인 작품이 있었다. 김정은·이유현 작가가 생태미술교 육프로그램인 칠십리 영 탐사대 참가 학생들과 함께 만든 '칠십리 영 탐사대'였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야외 설치작품이 주를 이루는 특성상 마을주민들의 작품에 대한 주인의식과 관리가 요구되는데 '칠십리 영 탐사대'가 장차 '유토피아로'의 주인이 될 아이들을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유도한 것이다.

세계의 보물섬으로 우뚝 선 제주의 자연은 여느 예술작품 못지 않다. 하나님의 거대한 애의 예술작품과 같은 제주자연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리가 요구됨은 당연하다. 하지만 제주의 산을, 바다를 놀이터 삼아 성장한 어렸을 때의 기억 때문"이라는 게 그들의 한결 같은 대답이다.

서귀포시 송산동과 천지동, 경방동 일대 4.3km에 총 43개의 작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2012마을미술프로젝트 '유토피아로'가 1년여의 제작기간을 거쳐 문을 열었다. 3~4시간을 걸

으면서 '유토피아로'의 43개 작품을 살펴봤는데 이 중 인상적인 작품이 있었다. 김정은·이유현 작가가 생태미술교 육프로그램인 칠십리 영 탐사대 참가 학생들과 함께 만든 '칠십리 영 탐사대'였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야외 설치작품이 주를 이루는 특성상 마을주민들의 작품에 대한 주인의식과 관리가 요구되는데 '칠십리 영 탐사대'가 장차 '유토피아로'의 주인이 될 아이들을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유도한 것이다.

세계의 보물섬으로 우뚝 선 제주의 자연은 여느 예술작품 못지 않다. 하나님의 거대한 애의 예술작품과 같은 제주자연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리가 요구됨은 당연하다. 하지만 제주의 산을, 바다를 놀이터 삼아 성장한 어렸을 때의 기억 때문"이라는 게 그들의 한결 같은 대답이다.

서귀포시 송산동과 천지동, 경방동 일대 4.3km에 총 43개의 작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2012마을미술프로젝트 '유토피아로'가 1년여의 제작기간을 거쳐 문을 열었다. 3~4시간을 걸

으면서 '유토피아로'의 43개 작품을 살펴봤는데 이 중 인상적인 작품이 있었다. 김정은·이유현 작가가 생태미술교 육프로그램인 칠십리 영 탐사대 참가 학생들과 함께 만든 '칠십리 영 탐사대'였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야외 설치작품이 주를 이루는 특성상 마을주민들의 작품에 대한 주인의식과 관리가 요구되는데 '칠십리 영 탐사대'가 장차 '유토피아로'의 주인이 될 아이들을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유도한 것이다.

세계의 보물섬으로 우뚝 선 제주의 자연은 여느 예술작품 못지 않다. 하나님의 거대한 애의 예술작품과 같은 제주자연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리가 요구됨은 당연하다. 하지만 제주의 산을, 바다를 놀이터 삼아 성장한 어렸을 때의 기억 때문"이라는 게 그들의 한결 같은 대답이다.

서귀포시 송산동과 천지동, 경방동 일대 4.3km에 총 43개의 작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2012마을미술프로젝트 '유토피아로'가 1년여의 제작기간을 거쳐 문을 열었다. 3~4시간을 걸

으면서 '유토피아로'의 43개 작품을 살펴봤는데 이 중 인상적인 작품이 있었다. 김정은·이유현 작가가 생태미술교 육프로그램인 칠십리 영 탐사대 참가 학생들과 함께 만든 '칠십리 영 탐사대'였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야외 설치작품이 주를 이루는 특성상 마을주민들의 작품에 대한 주인의식과 관리가 요구되는데 '칠십리 영 탐사대'가 장차 '유토피아로'의 주인이 될 아이들을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유도한 것이다.

세계의 보물섬으로 우뚝 선 제주의 자연은 여느 예술작품 못지 않다. 하나님의 거대한 애의 예술작품과 같은 제주자연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리가 요구됨은 당연하다. 하지만 제주의 산을, 바다를 놀이터 삼아 성장한 어렸을 때의 기억 때문"이라는 게 그들의 한결 같은 대답이다.

서귀포시 송산동과 천지동, 경방동 일대 4.3km에 총 43개의 작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2012마을미술프로젝트 '유토피아로'가 1년여의 제작기간을 거쳐 문을 열었다. 3~4시간을 걸

으면서 '유토피아로'의 43개 작품을 살펴봤는데 이 중 인상적인 작품이 있었다. 김정은·이유현 작가가 생태미술교 육프로그램인 칠십리 영 탐사대 참가 학생들과 함께 만든 '칠십리 영 탐사대'였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야외 설치작품이 주를 이루는 특성상 마을주민들의 작품에 대한 주인의식과 관리가 요구되는데 '칠십리 영 탐사대'가 장차 '유토피아로'의 주인이 될 아이들을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유도한 것이다.

세계의 보물섬으로 우뚝 선 제주의 자연은 여느 예술작품 못지 않다. 하나님의 거대한 애의 예술작품과 같은 제주자연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리가 요구됨은 당연하다. 하지만 제주의 산을, 바다를 놀이터 삼아 성장한 어렸을 때의 기억 때문"이라는 게 그들의 한결 같은 대답이다.

서귀포시 송산동과 천지동, 경방동 일대 4.3km에 총 43개의 작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2012마을미술프로젝트 '유토피아로'가 1년여의 제작기간을 거쳐 문을 열었다. 3~4시간을 걸

으면서 '유토피아로'의 43개 작품을 살펴봤는데 이 중 인상적인 작품이 있었다. 김정은·이유현 작가가 생태미술교 육프로그램인 칠십리 영 탐사대 참가 학생들과 함께 만든 '칠십리 영 탐사대'였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야외 설치작품이 주를 이루는 특성상 마을주민들의 작품에 대한 주인의식과 관리가 요구되는데 '칠십리 영 탐사대'가 장차 '유토피아로'의 주인이 될 아이들을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유도한 것이다.

세계의 보물섬으로 우뚝 선 제주의 자연은 여느 예술작품 못지 않다. 하나님의 거대한 애의 예술작품과 같은 제주자연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리가 요구됨은 당연하다. 하지만 제주의 산을, 바다를 놀이터 삼아 성장한 어렸을 때의 기억 때문"이라는 게 그들의 한결 같은 대답이다.

서귀포시 송산동과 천지동, 경방동 일대 4.3km에 총 43개의 작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2012마을미술프로젝트 '유토피아로'가 1년여의 제작기간을 거쳐 문을 열었다. 3~4시간을 걸

으면서 '유토피아로'의 43개 작품을 살펴봤는데 이 중 인상적인 작품이 있었다. 김정은·이유현 작가가 생태미술교 육프로그램인 칠십리 영 탐사대 참가 학생들과 함께 만든 '칠십리 영 탐사대'였다. 마을미술프로젝트는 야외 설치작품이 주를 이루는 특성상 마을주민들의 작품에 대한 주인의식과 관리가 요구되는데 '칠십리 영 탐사대'가 장차 '유토피아로'의 주인이 될 아이들을 프로젝트의 중심으로 유도한 것이다.

세계의 보물섬으로 우뚝 선 제주의 자연은 여느 예술작품 못지 않다. 하나님의 거대한 애의 예술작품과 같은 제주자연도 지속적인 애정과 관리가 요구됨은 당연하다. 하지만 제주의 산을, 바다를 놀이터 삼아 성장한 어렸을 때의 기억 때문"이라는 게 그들의 한결 같은 대답이다.

서귀포시 송산동과 천지동, 경방동 일대 4.3km에 총 43개의 작품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2012마을미술프로젝트 '유토피아로'가 1년여의 제작기간을 거쳐 문을 열었다. 3~4시간을 걸

으면서 '유토피아로'의 43개 작품을 살펴봤는데 이 중 인상적인 작품이 있었다. 김정은·이유현